

지역 소식통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지원정책 발굴회의 개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지난 24일 소장 주재로 5개 부서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더욱 어려워진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논의했다.

노인 가정도우미, 농촌 일손돕기, 생활방역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제시되었고,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실현 가능 여부 등을 검토,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저소득층
한시지원 사업 추진

김제시 청하면(면장 허정구)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김제사랑상품권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하면은 180세대, 239명에게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내용은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5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만원으로 수급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청하면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혼잡을 줄이고자 마을별 신청일을 정하여 진행하며, 상품권 지급 과정시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도 힘 쓸 예정이다.

허정구 청하면장은 "한시생활지원금 조기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저소득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로컬푸드로 지역농가 돕기

완주군 - 여성경제인협회,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로컬푸드 적극 홍보·소비 촉진... 관내 농가 활력에 기여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완주로컬푸드 건강한 밥상(대표 구윤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지원하고 사회적 재난 위기를 국민 모두가 이겨내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로컬푸드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안정적인 판로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어 개화연

기로 학교 급식 납품이 어렵게 된 생산 농가들도 로컬푸드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

더욱이, 로컬푸드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으면서 로컬푸드의 매출액은 치솟고 있다.

여기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까지 힘을 모으면서 관내 농가에 더욱 활력을 넣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우선적으로 밥상꾸러미 206개(62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김지혜 회장은 "건강한 우리 지역 먹거리로 회원들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박성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농가를 여성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우리 군은 여성 기업과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윤희 대표는 "여성경제인들과 함께 완주지역 로컬푸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도내 이웃들과의 상생을 위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쌀 기탁(전주시) ▲완주 소외 계층 및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탁(완주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 캠페인'으로 ▲화해농가를 위한 꽃 선물 릴레이 동참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전라북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방대원 격려 물품 전달(전주덕진소방서) 등 지역사회에서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최근 화산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마늘 재배 농업인, 농협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업 설명회 및 제품 시연회를 가졌다.

신기술로 마늘건조 쉽게

완주군, 가변형 건조시스템 보급해 마늘 운송 노동력 50% 절감

완주군이 신기술 보급으로 마늘농가의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킨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최근 화산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마늘 재배 농업인, 농협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업 설명회 및 제품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마늘 재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작년 고형형 마늘 냉풍건조시설 6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저비용·고효율 건조체계 구축을 이어간다.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과 국내육성 신품종 '홍산'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이다.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은 수확한 마늘을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배풍기를 이용해 건조하는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손쉽게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마늘 운송에 따른 노동력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또한 건조 소요일수는 관행 대비 약 10일 정도 단축돼 병해충 피해율도 20% 감소돼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시연회에서는 주요 관련기술을 이점 받은 2개 업체가 참여해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을 현장 설치한 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시범, 사용법 설명 및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했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마늘 재배 농가에게 건조비용 및 노동력 절감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 보급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프리랜서 인건비 선지급 확대 결정

5개 프로그램 19건 170여 명 최대 6개월분 인건비 선지급

완주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강사 등 프리랜서의 인건비 선지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섰다.

지난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사 등 프리랜서의 인건비 선지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미 시행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와 성인문해교사 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희망배움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등 3개 프로그램 강사들의 인건비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

다.

이로써 선지급을 시행 중인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해 총 5개 프로그램 19건, 170여명의 프리랜서 인건비가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선지급 될 인건비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적게는 월 20만원(희망배움터)에서 1인당 최대 130만원(성인문해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광생태학습사업소는 희망배움터 강사 55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자에 한해 1개월치를 일부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보건소의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강사(14명)도 1인당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선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지원과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89명에 대한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등 프리랜서 인건비 선지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완주군은 문화관광해설사와 성인문해교사 등 20명의 프리랜서 인건비를 2~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철우 부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프리랜서 인건비 선지급 확대에 나선 것"이라며 "작은 지원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3차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추진을 위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전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실과소장들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

한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관급자제 선고지 제도 등의 적극추진, 매주 추진상황 점검, 부서별 1억원 이상 부진사업관리 등을 통해 6월 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가 협력,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제시는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을 총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의 60%인 3,039억 원으로 설정하고, 매일 신속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날 허전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



한 전례 없는 내수위축 극복을 위해 각종 시설사업, 소비 부문의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김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종합민원실 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국제청환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의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여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중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되었다.

김제시 세정과장(배성권)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도입 첫 해인 만큼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납세 안내에 힘을 기울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점국의 모든 은행 및 자동화기기(은행·우체국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080-540-3377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